



ddaaL .



수상막으로 왔어요
이장훈 김진원 나인재 최동근

'종로3가 귀금속 거리는 노동법 무법지대…근로계약서도 없어'

송고시간 | 2018/07/17 11:00



서울 종로3가의 귀금속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현 기자 =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종로 세공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준비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3가~종로5가 사이 귀금속 가공 공장의 노동 실태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 일대 귀금속 가공 공장 약 500곳은 한국 귀금속 생산의 26%를 담당한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 수하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시급 8350원인데 알바 광고에선 1만 원 '꼼수' 논란

'주휴수당' 포함 관행으로 1만 원 돌파...알바한국 "시스템 개선 검토"

2018.07.20(금) 18:06:11



[비즈한국]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는 '시급 1만 원을 지급한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휴수당을 합쳐 시급을 홍보하는 관행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 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16.38%), 2019년 8350원(10.89%)으로 올랐다. 현 상황에선 문제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은 불투명하다.

비즈한국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채용포털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채용광고를 낸 기업들의 문제점을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미친듯 '시급 9040원(최저임금 시급 7530원+주휴수당 1510원)'을 내세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관련기사 [\[알바\] 채용광고 도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9040원'의 비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그간 주휴수당을 합쳐 단기 인력 모집한 CJ푸드빌(계절밥상, 빙스 등), CJ물리브네트웍스(풀리브ング), 롯데자일에스(롯데리아, 면세리더스 등), 미랜드파크 외식사업부(해솔리, 자연밸리 등), 아웃백스레이미크하우스코리아, 한국맥도날드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알바한국 등의 아르바이트 채용 포털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 시급을 포함한 금액으로 채용광고를 올리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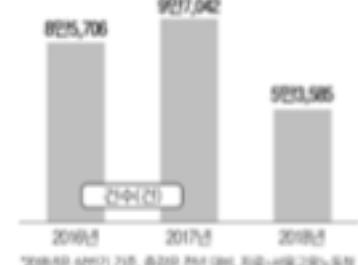
[단독] 알바생 '乙질'에 한달치 월급 물어준 영세사업주

근무불량해 이를만에 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해 불법"
임체직원, 노동청 고발 협박…벌금 해고수당마지 토해내
법규정 잘모르는 사업주들, 속수무책 당하는 사례 급증
서울고용노동청, 피해 막고자 노동법 유튜브 영상 제작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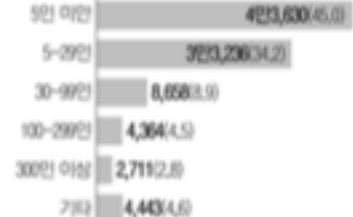
나현준 기자 | 입력 : 2018.07.19 17:36:58 | 수정 : 2018.07.20 11:12:00

■ 서울 노동분쟁 매년 10%대 늘어

서울지역 노동분쟁 신고 접수 현황



지난해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노동분쟁 신고 건수 (단위:건)



*별호 인은 비중(%), 자료=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 서초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원 B씨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업무 태도가 좋지 않아 고용한 지 이를 후 그만 나오라고 했더니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한 달 치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결국 총 230만원(벌금 50만원, 해고예고 수당 180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A씨는 "근로자인 B씨가 주민등록등본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라며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해고한 것인데 순식간에 범법자가 됐다"고 서울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드라마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보니…“불공정계약 심각”

#근로계약서 불법 유무 확인

#구인구직

#급한 일자리는 땀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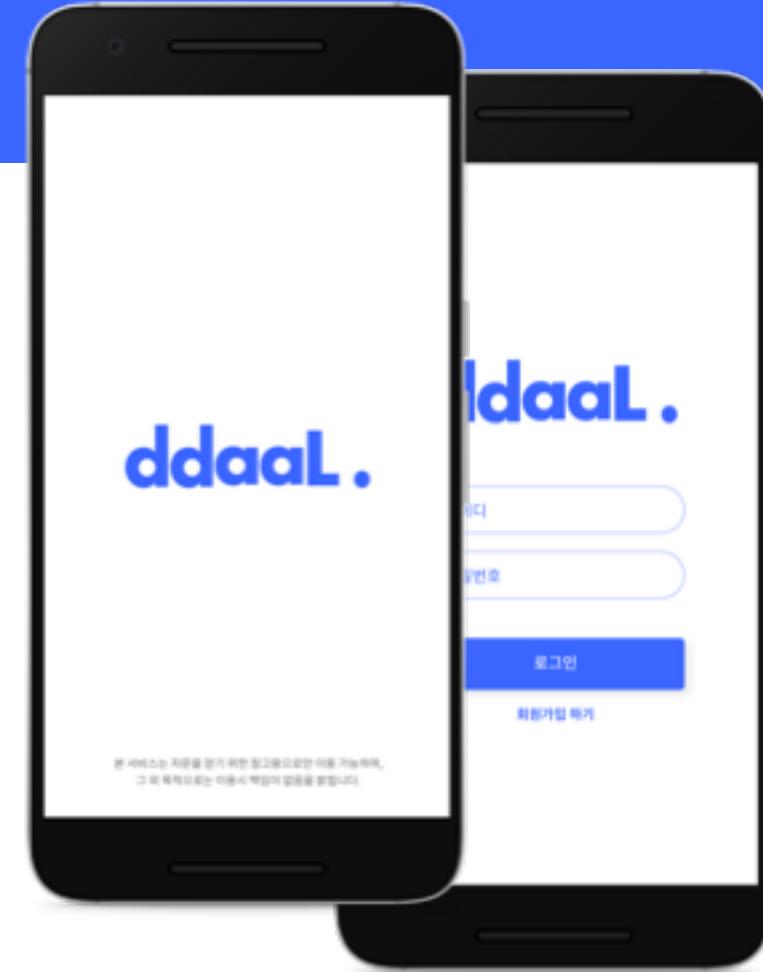
#변호인과 바로 연결

따뜻한 알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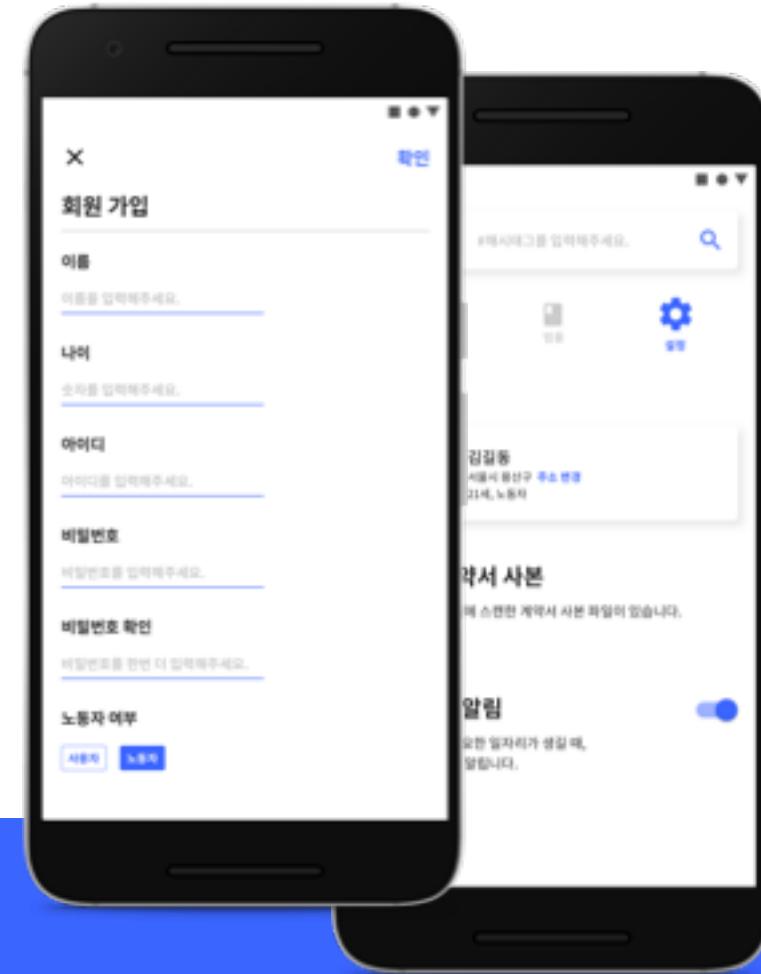
ddaal.

따뜻한 알바는 최근 불거지는 취업난과 최저시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불법 유무 정보 제공, 구인구직, 1:1 번호인 상담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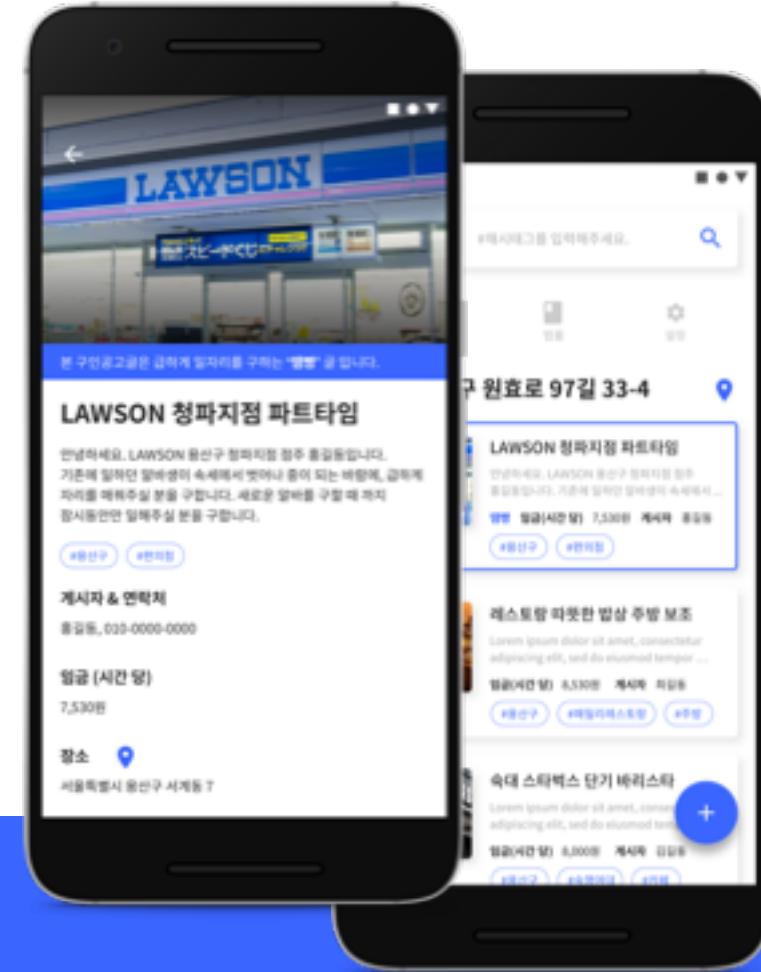
사용자, 노동자 구분

사용자는 구인을 하기 위해, 노동자는 구직을 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사용자와 노동자로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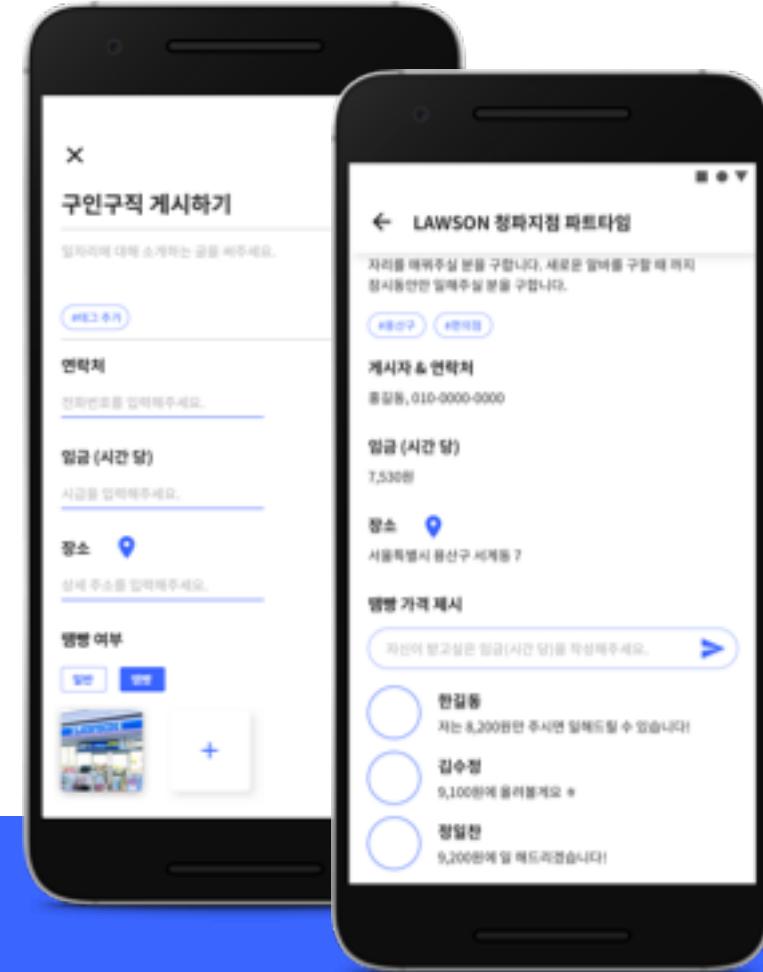
구직하기

노동자 계정의 사용자는 사용자가 등록한
구인공고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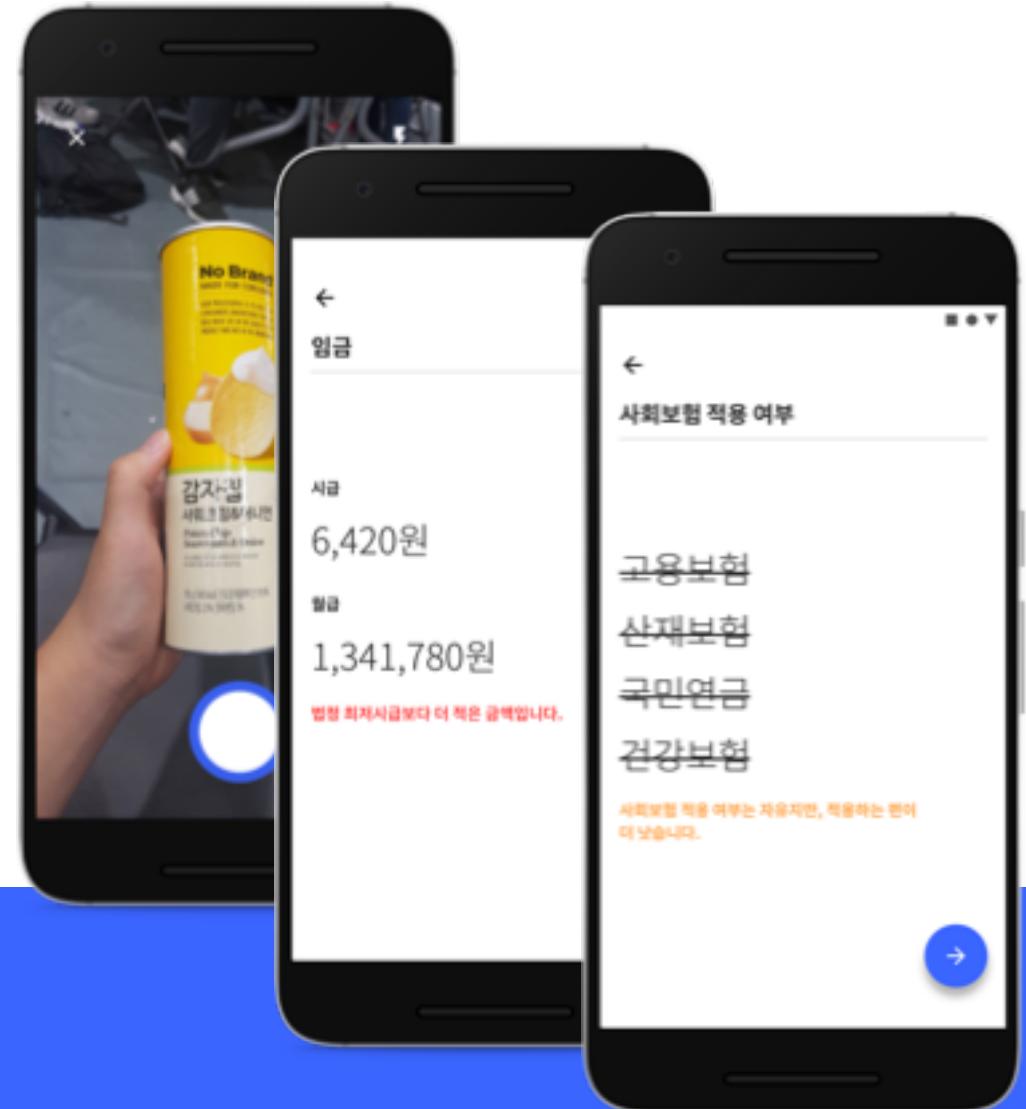
사용자는 급하게 필요한 일자리는 “땡땡”글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경매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자신이 가장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어필해 사용자가 빠르게 구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계약서 불법 유무 확인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스캔해 불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항목은 빨간색 글자로 경고하며, 근로계약서 표준에 없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불리한 항목은 주황색 글자로 표시합니다.



법률 상담

법률 탭에서 변호인들과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 설정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처에 “땡빵”이 필요한 일자리가 생길 때, 푸시 알림으로 앱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설정도 있습니다.



시연 영상

감사합니다.